

번호: PO-EP-032												
제 목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실태조사(1988-2005) Survey of Smoking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1988 - 2005.											
저 자 및 소 속	윤지은1), 김상연2), 김경미1), 지선하3), 서 일4), 김일순4) 1)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2)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3)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청소년 흡연율의 연도별 추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은 미래에 닥칠 건강피해를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됨은 물론이고 정부 금연정책의 방향설정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1988년 이래 전국 중,고등학교 흡연실태조사를 통하여 18년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p> <p>방법: 연구대상은 1988년부터 매 1년 혹은 2년마다 실시해 온 전국 중,고등학교 흡연율조사 대상 121개 학교의 학생들이다. 조사대상 학교는 각계층에서 무작위추출로 전국 양호교사 협의회에서 선정하였고, 해당학교의 학년 중 1반 학생 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조사대상자를 두배로 늘려 해당학교 학년 중 1반과 2반 학생 전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양호교사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조사대상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과 가족흡연력, 아버지의 직업 및 학력 등 가족관련사항이 포함되었다. 학생들의 흡연실태는 흡연 동기, 흡연시작연령, 하루 평균 흡연량, 흡연기간,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 흡연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05년에는 금연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문항을 추가하였고,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 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p> <p>결과: 남자 중학생은 2000년 7.4%까지 증가 하였다가 2004년 2.4%까지 감소한 후 2005년에 4.2%로 증가하였다. 여자 중학생은 2000년 이후 2-3%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다소 증가한 3.3%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1988년 23.0%를 시작으로 1997년 35.3%까지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현재 15.7%로 조사되었다.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률은 2000년 10.7%로 최고조에 이른 후 약간씩 감소하여 2001년 이후 7% 내외이다. 흡연의 동기는 흡연학생의 절반 이상이 '호기심'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학생 대다수의 흡연량이 '하루 5개비 이하'로 낮았으며, 흡연량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8년 이래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은 꾸준히 증가하여 90%이상 학생이 흡연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들의 금연의사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흡연률이 증가한 여자 고등학생에서 금연의사가 가장 높았다. 현재 중학생의 경우 90% 이상이 중학교에서 금연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금연교육이 금연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p>												
단위:%												
	1988	1991	1993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중 남	1.8	3.2	2.2	3.8	3.9	5.6	7.4	6.0	3.5	2.8	2.4	4.2
여	-	1.2	1.4	2.6	3.9	3.1	3.2	2.0	0.9	2.3	1.7	3.3
고 남	23.0	32.2	25.5	26.1	35.3	32.3	27.6	24.8	23.6	22.1	15.9	15.7
여	-	2.4	2.2	4.7	8.1	7.5	10.7	7.5	7.3	6.8	7.5	6.5
<p>결론: 우리나라 남자 고등학생 흡연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중학생의 흡연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금연할 수 있는 방안과 비흡연 학생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흡연예방교육의 강화 및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p>												